

신안 해저문화재 발굴 (新安 海底文化財 發掘)

文化財研究所長 金正基

(1)

신안 해저문화재 발굴조사(新安海底文化財發掘調査)는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 의(依)해 1976年 10月부터 시작되었고 이 조사(調査)가 우리 나라 수중고고학(水中考古學)의 첫걸음이었다.

수중고고학(水中考古學)이란 새로운 고고학(考古學)의 한 분야(分野)는 제2차세계대전(第二次世界大戰)후에 시작된 것으로 그 역사(歷史)는 오래지 않다.

바다 속이나 깊은 물 속에서 오래된 유물(遺物) 혹은 미술품(美術品)들을 건져 올린 일은 매우 오래 전부터였으리라고 믿어지며 그것이 학술적(學術的)으로 큰 관심(關心)을 끌게한 사건(事件)은 1900년에 지중해(地中海) 북(北)아프리카에서 해면(海綿)을 채취(採取)하는 잠수부(潛水夫)들의 일단(一團)이 폭풍우(暴風雨)를 피(避)해 프로포네스의 남(南)안티키테라도(島)에 들렀을 때 우연(偶然)히 오래 전에 침몰(沈沒)된 것으로 보이는 배를 발견(發見)하고 이 침몰선(沈沒船)에서 고고학자(考古學者)들이 그 속에서 대리석(大理石)이나 청동(靑銅)으로 만들어진 조각품(彫刻品)과 도기(陶器) 및 유리제품(製品)등의 문화재(文化財)를 찾아내었고 그것이 기원전(紀元前) 일세기 경(一世紀頃)에 로마가 희랍에서 약탈(掠奪)한 것임이 밝혀진데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當時)로는 깊은 수중(水中)이란 이유(理由)에서 수중(水中)에서의 활동(活動)의 제약(制約), 촬영(撮影), 측량(測量)의 곤란(困難)등으로 거의 학술적(學術的)인 조사(調査)는 실시(實施)되지 않았고 또 실시(實施)하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단지 지중해연안(地中海沿岸)을 주로 하여 북구주(北歐州) 연안(沿岸)등에서 간혹 어부(漁夫)들의 어망(漁網)에 걸려 올라온 고대유물(古代遺物)들에 관계전문가(關係專門家)들의 관심(關心)과 유물(遺物)의 고증(考證)에 힘을 기울일 정도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또한 수중(水中)에 묻혀 있는 상태(狀態)를 촬영(撮影)하고 실측도(實測圖)를 제작(製作)하여 학술자료(學術資料)로 삼는다는 지상유적(地上遺蹟)에서 당연(當然)히 이루어지는 그런 조사활동(調査活動)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實情)이었다.

제2차대전후(第二次大戰後), 각 분야(各分野)에 걸친 과학적(科學的) 발전(發展)과 이에 따른 각종(各種) 장비(裝備), 기기류(器機類)의 발달(發達)에 의(依)해 수중(水中)에서의 촬영(撮影) 수중(水中)에서의 지형(地形), 기물(器物)의 측량(測量)등이 거의 지상(地上)의 경우와 같이 시행(施行)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장시간(長時間) 잠수(潛水)할 수 있는 잠수장비(潛水裝備)의 발전(發展)과 잠수병(潛水病)에 대한 효과적(效果的)인 치료

기구(治療機具)등의 개발(開發)등으로 수중(水中)에서의 고고학적(考古學的) 조사활동(調查活動)을 과학적(科學的)으로 수행(遂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수중고고학(水中考古學)의 발달(發達)은 많은 성과(成果)를 올리게 되었고 금후(今後)로도 더욱 많은 학술적(學術的)인 성과(成果)를 기대(期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대상(對象)은 비단 침몰선(沈沒船)의 조사(調查)와 그의 적재물(積載物)의 조사(調查)에 그치지 않고 지각변동(地殼變動)이나 해안선이동(海岸線移動)등에 의(依)해 수몰(水沒)된 유적(遺蹟)의 조사(調查)까지도 가능(可能)케 했다.

수중고고학(水中考古學)의 발달(發達)은 종래(從來) 속수무책(束手無策)이라고 생각되었던 분야(分野)에 대한 조사(調查)를 가능(可能)케 했다고는 하나 아직 그 실시(實施)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隨伴)된다. 지상(地上) 또는 대기 중(大氣中)이란 일반적인(一般的)인 조사대상(調查對象)의 현물(現物)과 수중(水中)이란 현물(現物)의 절대적(絶對的)인 차이(差異)에 따른 대기 중(大氣中)과는 다른 많은 제약(制約)이 있다. 잠수장비(潛水裝備)가 아무리 발달(發達)되었다 해도 수중(水中)에서 머물고 있는 시간(時間)의 한계성(限界性), 수중(水中)에서의 수압(水壓)에 따른 활동제한(活動制限), 인력(人力)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해류(海流)의 문제(問題), 일정수심(一定水深) 이하(以下)로 깊이 잠수(潛水)할 수 없는 육체적(肉體的) 제약(制約)등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들의 각종(各種) 제약요소(制約要素)가 복합(複合)하여 조사활동(調查活動)에는 상상(想像) 못할 큰 제약(制約)이 가(加)해지는 것이다. 이들 제약(制約) 가운데 장래(將來)의 과학(科學)의 발달(發達)과 기술(技術)의 향상(向上)에 따라 많이 감소(減少)될 수 있는 부분(部分)도 적지 않을 것이나 결코 지상(地上) 대기 중(大氣中)에서의 조사(調查)와 같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과학(科學)이 발달(發達)되고 기술(技術)이 향상(向上)된다 하더라도 수중고고학(水中考古學)의 조사(調查)는 엄청난 경비(經費)가 소요(所要)되어 누구나가 어디서든지 실시(實施)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 실시(實施)되어 우리 나라 고고학사상(考古學史上) 한 역사적(歷史的) 거사(舉事)로 영원(永遠)히 기록(記錄)될 이번 신안 해저 문화재 발굴조사(新安海底文化財發掘調査)는 수중 고고학적(水中考古學的) 조사(調查)로서는 그러한 많은 제약(制約)위에 다시 타(他)의 유례(類例) 없을 정도(程度)의 불량(不良)한 수중환경(水中環境)속에서 실시(實施)되었던 것이며 그 어려움을 극복(克服)하여 얻은 성과(成果)는 세계적(世界的)으로도 높이 평가(評價)될 큰 것이었다. 말하자면 종래(從來) 이루어진 수중발굴(水中發掘) 가운데서는 세계(世界)에서 가장 어려운 수중발굴(水中發掘)이었고 그 성과(成果)는 가장 큰 수중발굴(水中發掘)이었다.

(2)

신안군(新安郡) 지도면(智島面) 방축리(防築里) 도덕도(道德島) 앞바다에서 어로작업중(漁撈作業中) 1975年 5월경(月頃) 어망(漁網)에 걸려 청자화병(靑磁花瓶)등 도자기(陶磁器) 6점(點)이 올라온 것을 1976年 1月 9日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에 발견(發見) 매장(埋藏) 문화재(文化財)로 신고(申告)되어 당국(當局)에서 처음 이 부근(附近) 바다 밑에 도자기류(陶磁器類)가 수몰(水沒)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동안에 몰지각(沒知覺)한 어부(漁夫)들이 그 수몰(水沒)된 유물(遺物)을 불법(不法) 인양(引揚) 암

매(暗賣)하는 행위(行爲)들이 있었다. 이들 도굴범(盜掘犯)들은 사직당국(司直當局)의 신속(迅速)하고 적절(適切)한 조치(措置)로 모두 체포되어 시중(市中)에 유출(流出)되었던 인양유물(引揚遺物)도 122점(點)이 압수(押收)되었다. 당초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서는 해당(該當) 유물수몰지역(遺物水沒地域)에 대한 현장보존책(現狀保存策)과 아울러 학술조사방안(學術調查方案)을 면밀(綿密)히 검토 중(檢討中)에 있었으나 수몰유물(水沒遺物)의 도굴사건발생(盜掘事件發生)으로 더 이상(以上) 수몰유물(水沒遺物)의 조사(調查) 인양(引揚)을 지연(遲延)시킬 수 없는 사태(事態)에 다달았다. 이에 따라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은 해군(海軍)의 잠수대(潛水隊)와 그에 필요(必要)한 함정(艦艇), 장비(裝備)등의 지원(支援)을 받아 1976年 10月 26일부터 11月 30일까지 2차(次)에 걸친 유물인양조사(遺物引揚調查)를 실시(實施)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1·2차(次) 조사(調查)에서 밝혀진 사실(事實)은 해저(海底)에 많은 도자기(陶磁器)를 위주로 한 유물(遺物)이 수몰(水沒)되어 있으며 수중환경(水中環境)은 매우 나쁜 상태(狀態)로서 충분(充分)한 조사활동(調查活動)은 어려운 상태(狀態)임이 밝혀졌다.

1·2차조사단(次調查團)의 구성(構成)은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이 주관(主管)하고 해군(海軍)의 해난구조대(海難救助隊)인 5·1전대(戰隊)를 지원단(支援團)으로 하였으며 조사지도위원(調查指導委員)에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 제(第)1분과위원(分科委員)인 조명기(趙明基), 황수영(黃壽永), 김원룡(金元龍), 최순우(崔淳雨), 윤장섭(尹璋燮)등 제씨(諸氏)가 위촉(委囑)되고, 실무요원(實務要員)으로는 최학수(崔學秀)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관리관(管理官), 김정기(金正基) 문화재연구소장(文化財研究所長), 정양모(鄭良謨)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 수석학예연구관(首席學藝研究官), 조성도(趙成都) 해사박물관장(海土博物館長), 맹인재(孟仁在) 민속박물관장(民俗博物館長), 최인상(崔仁祥) 5·1전대(戰隊)사령관(司令官)등을 위시한 심해잠수부(深海潛水夫)등 62명(名)이었다.

수중환경(水中環境)은 수심(水深)이 17~20m정도(程度)로서 그다지 깊지 않으나, 해저(海底)에 많은 펄이 침전(沈澱)되어 있어 이것이 조수(潮水)의 간만(干滿)에 따른 빠른 해류(海流)에 인(因)해 일어나 수중(水中)의 시계(視界)는 완전(完全)히 “0”이며 암흑(暗黑)과 같은 현상(現象)이었다. 이 지역(地域)은 우리 나라 서해안(西海岸)의 남단(南端) 부근(附近)이며 우리 나라 서해안(西海岸)은 세계적(世界的)으로 이름 높은 간만(干滿)의 차(差)가 큰 지역(地域)이다. 현장부근(現場附近)은 평시(平時)에도 간만(干滿)의 해수면(海水面)의 고저차(高低差)는 6m가 넘는 큰 곳이며 따라서 간만조시(干滿潮時)의 조류(潮流)의 속도(速度)도 매우 빨라 해면(海面)에서 13노트, 해저(海底)에서도 6노트 정도(程度)되어 이런 조류(潮流)가 흐를 때는 거의 잠수작업(潛水作業)은 불가능(不可能)한 상태(狀態)였다.

이 밖에도 해상(海上)의 상태(狀態)는 풍랑(風浪)이 극심(極甚)하여 어느 계절(季節)에나 충분(充分)히 출항(出航) 잠수활동(潛水活動)을 할 수 있는 상태(狀態)가 아니었고 특히 10月에서 3월경(月頃)까지는 풍랑(風浪)이 심(甚)하고 6月에서 8월경(月頃)까지가 비교적(比較的) 풍랑(風浪)이 적고 조사실시(調查實施) 적기(適期)임을 알게 되었다.

제(第)1차 조사(調查)는 1976年 10月 26일부터 11月 2일까지 실시(實施)되었으며 이 사이에 10月 27日 유물수몰지역(遺物水沒地域)을 재확인(再確認)하는데 그쳤고 유물인양(遺物引揚)은 11月 1日 하루의 잠수(潛水)만이 가능(可能)했다.

제(第)2차 조사(調查)는 11月 9일부터 12月 1일까지 실시(實施)되었으며 이 사이에 잠

잠수활동(潛水活動)할 수 있었던 것은 불과(不過) 8日 뿐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말 한 바와 같이 조류(潮流)가 빨라 바다가 잔잔하더라도 잠수활동(潛水活動)이 가능(可能)한 것이 아니다. 간조(干潮)에서 만조(滿潮)로 다시 만조(滿潮)에서 간조(干潮)로 조수(潮水)의 흐름이 바뀌어 질 때 잠시나마 조수(潮水)의 흐름이 중지(中止)되는 시간(時間)이 있다. 이 때를 정조기(靜潮期)라고 하나 이것이 하루에 네 번 있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밤중에 두 번 낮에 두 번 있어 이 낮에 있는 두 번의 정조기(靜潮期)를 이용(利用)하여 잠수활동(潛水活動)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시간(時間)은 조류(潮流)가 빨라서 작업(作業)을 못한다.

잠수활동(潛水活動)을 전담(專擔)한 해군(海軍) 잠수사(潛水士)들은 정조기(靜潮期) 직전(直前)에 다음 잠수활동(潛水活動)을 위한 모든 준비(準備)를 완비(完備)하고 정조기(靜潮期)에 입수(入水) 유물인양작업(遺物引揚作業)을 실시(實施)하며 이 시간(時間)은 한 번의 정조기(靜潮期)에 약(約) 한 시간 정도이다. 잠수활동(潛水活動)이 끝난 후 잠수사(潛水士)들은 잠수장비(潛水裝備)의 정비(整備) 및 인양유물(引揚遺物)의 발굴상황(發掘狀況)등을 조사원(調查員)에게 알리고 휴식(休息)에 들어간다. 대개의 경우 한 잠수사(潛水士)의 한 번 잠수시간(潛水時間)은 30분(分)이며 그 이상(以上)의 계속된 잠수(潛水)는 육체적(肉體的) 위험(危險)이 있다는 것이다. 인양(引揚)된 유물(遺物)의 정리(整理)와 조사(調查), 기록(記錄)은 학술조사반(學術調查班)이 담당(擔當)하며 이들 조사반(調查班)은 유물(遺物)의 세척(洗滌), 분류기호기입(分類記號記入), 출토상태(出土狀態) 청취(聽取), 기록(記錄), 촬영(撮影), 유물(遺物)의 정리(整理) 격납(格納)등 모든 발굴(發掘)된 유물(遺物), 자료(資料), 정리(整理)를 담당(擔當)한다. 이런 정리작업(整理作業)은 실지(實地) 잠수활동(潛水活動)시간(時間)의 짧음에 비(比)하여 매우 다망(多忙)한 작업(作業)으로서 조사반원(調查班員)들은 종종 야간작업(夜間作業)을 실시(實施)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은 인양(引揚)된 유물(遺物) 점수(點數)가 의외(意外)로 많았고, 유물(遺物)의 종류(種類) 출토상태(出土狀態)등이 다양(多樣)하여 유물(遺物) 하나 하나에 대해서 적절(適切)한 처리(處理)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1·2차 조사(調查)에서 발견(發見)된 유물(遺物)은 중국(中國) 송(宋), 원대(元代)의 청자(靑磁) 1,253점(點) 백자(白磁) 441점(點) 기타(其他) 도자기(陶磁器) 106점(點)이며 동전(銅錢)을 제외(除外)한 그 밖의 유물(遺物)들이 197점(點)이고 동전(銅錢)은 약(約) 6,000여 점(餘點)이나 되었다.

(3)

1·2차 발굴(次發掘)의 의의(意義)는 유물수몰지점(遺物水沒地點)의 확인(確認)과 그 지역일대(地域一帶)의 해상(海上) 해중(海中)의 환경조사(環境調查)등의 기본조건(基本條件)의 조사(調查)와 해저유물(海底遺物)의 수몰매장상태(水沒埋藏狀態) 파악(把握)이 주목적(主目的)이었으며 아울러 해저(海底)에 노출(露出)된 상태(狀態)로 굴러있는 유물(遺物)을 도굴방지(盜掘防止)를 주목적(主目的)으로 인양(引揚)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조사결과(調查結果)는 그런 목적(目的)을 거의 충족(充足)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 다만 수중환경(水中環境)이 의외(意外)로 불량(不良)하여 해저(海底)에 매장(埋藏)된 유물상황(遺物狀況) 파악(把握)은 충분(充分)한 성과(成果)를 올리지 못했다.

이 1·2차 조사(調查)에서 얻어진 여러 자료(資料)를 검토분석(檢討分析)하여 제(第)3

차 조사(調査)는 그 결과(結果)를 토대(土臺)로 발굴조사단(發掘調査團)을 대폭(大幅) 확대정비(擴大整備)하고 조사방법(調査方法)에 있어서도 좀 더 과학적(科學的)이며 진보(進歩)된 방법(方法)으로 수행(遂行)하기로 하였다. 조사단(調査團)은 단장(團長)에 윤무병(尹武炳) 충남대박물관장(忠南大博物館長), 부단장(副團長)에 김정기(金正基) 문화재연구소장(文化財研究所長), 관리부장(管理部長)에 최학수(崔學秀) 문화재관리관(文化財管理官)을 위촉(委囑)하고 단장(團長) 밑에 관리관(管理官), 발굴반(發掘班), 정리반(整理班)을 두었고, 각(各) 조사반(調査班)에 4~6명(名)의 반원(班員)을 두었고 그 밖에 지도위원(指導委員)과 발굴위원(發掘委員)등 총(總) 30명(名)으로 구성(構成)되었다. 또 조사단(調査團) 외(外)에 해군(海軍) 5·1전대(戰隊)를 주축(主軸)으로 한 함정(艦艇)과 요원(要員) 및 심해잠수사(深海潛水土)들을 지원단(支援團)으로 하고, 전남도청(全南道廳),新安군청(新安郡廳), 목포경찰서(木浦警察署)등의 기관(機關)이 협의기관(協議機關)으로 하였다.

이 무렵 미국(美國)의 고대선박연구(古代船舶研究)를 전공(專攻)하는 잠수전문가(潛水專門家)인 고고학자(考古學者) 돈 키즈씨(氏)가 내한(來韓)新安군(新安郡) 해저유물 매장지(海底遺物埋藏地)를 직접(直接) 탐사(探查)하여 우리들의 조사수행(調査遂行)에 참고(參考)될 조언(助言)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씨(氏)는 1977年 6月 7日부터 6月 14日까지 현지조사(現地調査) 후(後) 우리와의 회담(會談)을 갖게 되었다. 이 때 씨(氏)의新安해저(新安海底)에 관한 견해(見解)로서 「내가 경험한 가장 조사조건(調査條件)이 나쁜 해중(海中)이며 시야(視野)는 “0”이고 해류(海流)가 강(強)하기 때문에 충분(充分)한 학술조사(學術調査)는 매우 어려운 형편(形便)이다」란 뜻의 말을 했고 조사수행상(調査遂行上)의 참고(參考)될 수 있는 내용(內容)의 토론(討論)이 있었다.

제(第)3차 조사(調査)는 1977年 6月 27日부터 7月 31日까지 계속(繼續)되었으며 조사단(調査團)의 주력(主力)은 지도(智島)에 본거지(本據地)를 두고 관리반(管理班)만은 일부(一部) 목포(木浦)에 체류(滯留), 조사수행상(調査遂行上)의 제반(諸般) 행정업무(行政業務)를 맡았다. 이 조사(調査)에는 해군함정(海軍艦艇) 세 척(隻)과 이에 따른 장병(將兵) 240명(名), 그리고 해저(海底) 조사장비(調査裝備)와 잠수병(潛水病)에 대비(對備)한 구조(救助) 장비(裝備)등이 동원(動員)되었고 심해잠수사(深海潛水土) 58명(名)이 조사(調査)를 지원(支援)하였다.

조사방법(調査方法)은 선체(船體)가 매장(埋藏)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推測)되는 유물(遺物)이 출토(出土)되는 해저면(海底面)에 2m방안(方眼)으로 구획(區劃)된 철제구획(鐵製區劃)(4m×6m), 4개(個)를 설치(設置)하고 구획순서(區劃順序)에 따라 한 구획(區劃)한 구획(區劃) 조사(調査) 인양(引揚)하는 방법을 실시(實施)하였고, 인양(引揚)된 유물(遺物)의 위치(位置)는 구획내(區劃內)의 위치(位置)를 목측(目測)하여 출토시(出土時)의 유물(遺物)상태(狀態)를 해상(海上)의 조사원(調査員)에 통보(通報)하도록 하였다. 발굴반원(發掘班員)은 현물(現物) 해상(海上)에 설치(設置)된 부교(浮橋) 위에서 잠수사(潛水土)로부터 청취(聽取)한 내용(內容)을 기록(記錄), 출토위치(出土位置)를 도면(圖面)에 기입(記入)하고 유물(遺物)에 정리(整理) 번호(番號)를 부착(附着)시켜 모함(母艦)으로 운반(運搬)하고 모함(母艦)에서는 1차(次) 이들 유물(遺物)을 해수(海水)로 세척(洗滌)하여 안전(安全)하게 포장(包裝), 격납상자(格納箱子)에 넣어 소형목선(小形木船)으로 그 날 그날 출토(出土)된 유물(遺物)을 지도(智島)의 조사(調査) 기지(基地)에 운반(運搬)토록 했다. 지도(智島)에서는 정리반원(整理班員)들이 다시 포장(包裝)된 유물(遺物)을 풀

고 담수(淡水)로 뿔과 오물(汚物)을 제거(除去)한 뒤에 이를 건조(乾燥)시켜 실측(實測)과 일부(一部) 촬영(撮影)을 하고 재포장(再包裝)하여 서울로 이송(移送)할 수 있도록 처리(處理)하였다.

이러한 조사방법(調查方法)에 의해 제(第)3차 조사(調查)에서는 유물(遺物)이 출토(出土)된 위치(位置)와 대강의 깊이 및 그 상태(狀態)를 도면화(圖面化)할 수 있어 어떤 유물(遺物)이 어떤 부위(部位)에서 출토(出土)되는지 그리고 목선(木船)의 한 부분(部分)으로 생각되는 목재(木材)가 어느 위치(位置)에서 어떻게 노출(露出)되어 있는지를 비교적(比較的) 정확(正確)히 알 수 있었으며 1·2차(次) 조사(調查)에 비(比)하여 매우 큰 학술적(學術的) 자료(資料)를 얻는데 성공(成功)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매장상태(埋藏狀態) 등을 수중촬영(水中撮影)치 못한 것이며 이는 해중(海中)의 시계(視界)가 “0”라는 점(點)인데 그 이유(理由)는 뿔의 작은 입자(粒子)들에 의해 광선(光線)을 완전(完全)히 차단하기 때문으로 부득이(不得已)한 일이었다.

이 3차(次)조사(調查)는 다행(多幸)이 좋은 해상조건(海上條件)의 날이 계속(繼續)되어 거의 매일(每日) 잠수(潛水)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조사원(調查員)들의 작업(作業)도 매우 다망(多忙)했다.

제(第)3차(次)조사(調查)에서 얻어진 성과(成果)로는 첫째 유물(遺物) 출토상태(出土狀態)를 도면화(圖面化)할 수 있었던 것이며 그 밖에도 적지 않은 성과(成果)가 있었다. 우선 유물(遺物)이 포장(包裝)된 채로 목상자(木箱子) 속에 격납(格納)된 것을 그대로 인양(引揚)할 수 있었던 것이 몇 상자(箱子) 되고 그로 인(因)해 수몰(水沒)되었던 시대(時代) 즉 원초(元初)의 포장방법(包裝方法)이나 단위(單位) 숫자(數字)에 대한 개념(概念)등을 알 수 있었고 묵서(墨書)등의 명문(銘文)이 있는 유물(遺物)의 발견(發見), 도자기(陶磁器) 이외(以外)의 유물(遺物) 특히 무역품(貿易品)으로 보이는 유물(遺物)이 다양(多樣)하게 발견(發見) 되었으며, 침몰선(沈沒船)의 선원(船員)들의 생활용구(生活用具)로 보이는 유물(遺物)도 발견(發見)되었던 점(點) 등이 중요했다. 특히 고려청자(高麗靑磁) 3점(點)이 발견(發見)되어 여타(餘他) 유물(遺物)과 고려청자(高麗靑磁)의 편년상(偏年上)의 비교연구자료(比較研究資料), 침몰선(沈沒船)의 항로(航路)등의 고찰자료(考察資料)로서 중요(重要)하였으며 선체(船體)의 일부(一部)로 보이는 목재(木材)의 노출상태(露出狀態)로 침몰선(沈沒船)의 규모(規模)와 구조(構造)등을 추정(推定)할 수 있게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 조사(調查)에서 인양(引揚)된 유물(遺物)은 청자(靑磁) 1,733점(點), 백자(白磁) 1,802점(點), 기타(其他) 도자기(陶磁器) 652점(點)이며 금속제품(金屬製品) 218점(點), 목질유물(木質遺物) 140점(點) 기타(其他), 113점(點)이며 이 밖에 동전(銅錢)은 약(約) 10만 여점(萬餘點)이 될 것으로 추정(推定)되었다.

(4)

3차(次)조사(調查)가 끝난 후 국내(國內) 관계(關係) 학자들의 신안 문화재학술대회(新安文化財學術大會)가 8月 29日과 30日에 있었고 국제학술대회가 10月 18日부터 20日까지 사흘동안 우리 나라 미국(美國), 영국(英國), 일본(日本), 중국(中國), 홍콩 등 6개국의 고고학자(考古學者)와 국내학자(國內學者) 54명(名)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 두 세미나를 통하여 지금까지 인양(引揚)된 유물(遺物)과 유물(遺物)을 싣고 있던 침몰

선(沈沒船)에 대한 고찰연구(考察研究)는 상당히 추진되었고 이에 대한 기록이 월간문
화재 1977년 11월 호에 자세히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몰(水沒)되어 있는 유물(遺
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목선(木船)에 관해서도 더욱 확실(確實)한 실태(實態)는 금
후(今後)로의 조사(調査)에서 밝혀질 것이고 이러한 조사가 완료되어야만 이들에 대한
최종적인 고찰연구(考察研究)가 가능하다. 또한 침몰선 인양 방법과 보존처리방법 등도
이들 유물(遺物)이 모두 인양(引揚)되고 선체(船體)의 확실한 상황이 파악되어야만 결정
할 수 있다. 당국에서는 1978년에 계속할 이 발굴에는 이미 확보된 자료의 검토 결과와
좀더 진보된 수중 촬영방법으로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